

‘半 소부장 강국’ 日에 R&D 거점... 韓 기술과 시너지 기대

〈반도체〉

삼성전자, 日에 3000억 투자

기시다 총리, 반도체社 경영진 초청
반도체 투자·육성·제휴 등 논의
TSMC·인텔도 R&D센터 등 투자
세계적 기업 생태계 활용 장점도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일본이 반도체 굴기를 본격화하는 가운데, 삼성전자도 투자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기술 유출 우려와는 달리 세계 수준 현지 소부장 기술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데다가, 부족한 인력 확보 효과도 기대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일본 요코하마에 새로운 R&D 거점을 만들 계획을 세웠다. 약 3000억원을 투자하고 1000억원 수준 현지 정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이미 지난해 일본 각지에 있던 R&D 거점을 요코하마에 디바이스 솔루션 리서치 재팬(DSRJ)으로 통

합한 바 있다. 올 초에는 후공정 검사라인을 새로 설치할지 여부를 고민 중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일본 정부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유치하는 모습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8일 도쿄 총리 관저에 글로벌 반도체 기업 경영진들을 초청하고 투자를 요청할 예정이다. 경쟁력을 잃고 있는 일본 소부장 업계와 제휴를 유도하고 반도체 산업을 육성할 방안을 논의하기

위험이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현지 업체들과 첨단 반도체 관련 공동 연구를 추진하고, 이를 활용한 후공정 관련 설비를 갖출 것으로 보고 있다. 투자금액이 반도체 팹을 만들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일본이 새 팹을 만들기에도 적합하지 않은 이유다.

일본은 반도체 소부장 강국으로 통한다. 고순도 소재는 물론이고 세계 최고

실리콘 웨이퍼 생산업체인 섬코와 장비업체 도쿄일렉트론 등이 자리하고 있다. 캐논과 니콘도 반도체 식각 장비인 NIL과 DUV 등으로 경쟁력이 높다. FCBGA 등 반도체 기반 세계 1위인 이비덴과 2위인 신코도 있다.

삼성전자가 일본 거점을 강화하면 이들 기업들과 시너지가 기대된다. 협력을 대폭 강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코로나19 등에 따른 리스크도 줄일 수 있다.

전세계 주요 반도체 기업들도 일본에 투자를 강화하는 추세다. 다만 TSMC가 R&D 센터 뿐 아니라 팹까지 구축하는 상황, 인텔도 R&D 센터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일본에 거점을 마련하면 전세계 반도체 기업들이 만든 생태계까지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인력 부족 문제 해소도 기대되는 부분이다. 글로벌 반도체 업계 인력 확보 작전 속에서 이미 검증된 일본 인력까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요코하마는 TSMC 재팬 디자인센터를 비롯한 후공정 거점과 디자인 하우스 등 다양한 업체들이 자리잡고 있다. 도쿄와도 40km 정도로 가깝다.

일각에서는 반도체 기술 유출을 우려하기도 하지만,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중론이다. 양산 기술이 있는 팹을 짓는 것도 아니고, 패키징이나 소부장 분야에서는 오히려 현지 기술력이 훨씬 앞서 있다. 투자 규모를 감안해도 주요 생산 거점보다는 연구 개발 기지에 무게가 실린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2+2 장관급 경제안보 대화 출범...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

〈외교·산업부〉

韓-캐나다 정상회담
수교 60주년 트뤼도 총리 방한
향후 60년 미래협력 비전 공유

윤석열 대통령이 한·캐나다 수교 60주년을 맞아 방한한 쥐스탱 트뤼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 '새로운 60년을 함께 더 강하게(Stronger Together for the next 60 years)' 나아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 정상은 60년간의 우호 협력과 공동의 비전·가치에 기반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더 심화·발전시키자는데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1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트뤼도 총리와 소인수회담 및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양해각서(MOU) 서명식

과 공동기자회견을 했다. 대통령실은 트뤼도 총리의 방한에 대해 올해 한·캐나다 수교 60주년을 맞아 양국관계의 새로운 60년의 시작을 알리는 이정표가 됐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9월 한·캐나다 정상회담에서는 양국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고 ▲규범 기반 국제질서 수호 ▲안보·국방 협력 강화 ▲경제안보·공급망·과학기술 파트너십 증진 ▲기후변화·환경·에너지 협력 확대 ▲인력·문화교류 프로그램 확장 등 5대 핵심 협력 분야에 합의를 이뤄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그간 진척된 분야별 구체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60년의 미래 협력 비전을 공유했다.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

반도 및 역내 정세와 관련해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 규탄 및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 강화 의지 표명 ▲우리 정부의 한일관계 개선 노력에 대한 캐나다 지지 확인 ▲인도·태평양 핵심 파트너로서 북태평양 국가 간 협력 강화 방안 모색에 합의했다.

안보협력을 위해서는 양국 간 정보보호 협정을 체결키로 하고, 방산협력 추진 및 비전통적 안보위협 대응 공조에 합의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2+2 고위급 경제안보 대화 출범 ▲핵심광물 MOU 체결 ▲캐나다 IPEF 가입을 한국이 공식 지지하기로 했다.

2+2 고위급 경제안보 대화 출범과 관련해 양국의 외교·산업부 장관은 외부

전략환경 및 경제안보 정책에 대한 전략적 평가를 공유하고, 공급망 및 청정에너지 협력, 주요 경제안보 관심 사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 핵심광물 MOU는 양국 간 첨단 제조산업에 필수적인 핵심광물 공급망과 청정에너지 전환·에너지 안보 전반에 이르는 포괄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핵심광물 제련, 교역, 재활용에 이르는 포괄적인 공급망 협력 추진 및 수소,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등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한 협력 추진, 니켈 등 핵심광물 생산국인 캐나다와 핵심광물 협력을 추진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청정에너지 분야 경쟁력 강화 효과가 기대된다.

문화·인적교류를 위해 새로운 청년 교류 MOU를 체결해 미래 세대의 상호 교류 통로를 확장하고, 수교 60주년 기념 문화교류 사업 협의하기로 했다.

청년교류 MOU를 체결함으로써 연간 쿼터가 4000명에서 1만2000명으로 3배 증가 등 쿼터 증가, 인턴십 및 차세대 전문가 프로그램 도입 등을 통해 양국 청년들의 상호교류 기회가 양적·질적으로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과학기술 협력을 위해 지난 정상회담의 계기 체결된 인공지능(AI) 협력 MOU 이행 차원의 양국 기업·연구기관 간 공동연구를 양국 정부가 적극 지원하고, 캐나다가 주도하는 '글로벌 탄소가격 챌린지' 동참 등 기후변화 공조 강화, 한국 주최 예정인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협력 등 가치연대 심화, 우크라이나 지원 등 글로벌 현안에 공조하기로 합의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all ways INCHEON

인천광역시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

모두가 잘사는 균형도시 | 꿈이 실현되는 세계도시 | 진심과 배려의 소통도시 | 미래가치 창조의 혁신도시